

박진섭 감독, 광주 FC 클래식 진입 도전



현역 시절 피돌이·시드니 올림픽 '좌영표-우진섭' 호흡 “젊고 풍부한 경험·안정된 팀 이끌 리더십 갖춰 적임”

광주 FC가 '피돌이' 박진섭(사진)을 앞세워 클래식 무대를 향한 도전에 나선다.

광주에는 시련의 2017 시즌이었다. 2014년 겨울 극적인 승격을 이끔던 '강한 광주'를 만들었던 남기일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지난 8월 자진사퇴했고, 소방수로 나선 '학범슨' 김학범 감독도 광주의 강등을 막지 못하면서 시즌 최종전이 끝난 뒤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3년 만에 챌린지 리그로 강등이 된 광주는 지난 18일 박진섭(40) 전 포항스틸러스 코치를 사령탑에 앉히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박진섭 감독은 현역 시절 뛰어난 두뇌 플레이로 팬들을 열광시켰던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예측불허의 플레이로 그라운드를 누빈 그는 기습적인 측면 돌파와 매서운 공간 패스로 실력 발휘를 했었다.

고려대 재학 시절인 1996년 U-20 국가대표를 시작으로 U-23, A대표(35경기 5골)까지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했다.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이영표와 완벽한 호흡을 과시하며 '좌영표-우진섭'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상무에서 군복무를 했던 박진섭 감독은 울산 현대, 성남 일화(성남FC 전신), 부산 아이파크 등을 거치며 프로생활을 이어갔다. 통산 284경기(3득점 27도움)를 뛰면서 K리그 우승 1회, 준우승 3회 등을 경험했다.

2012년 은퇴 후 부산 U-18(개성고)로 자리를 옮기며 지도자로 변신한 박진섭 감독은 그해 개성고의 리그 준우승을 이루며 지도력도 인정받았다. 2015년부터는 부산과 포항에서 코치로 활약해왔다.

광주의 팀 재건이라는 목표에 잘 어울리는 지도자라는 평가다. 광주는 2018시즌부터 팀을 이끌어갈 신입 감독으로 젊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자, 리빌딩을 통해 새롭고 안정된 팀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모색해 왔다.

광주 관계자는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려곡절이 많았다. 어려운 여건에서 감독을 모셔야 했기에 더욱 힘들었다”며 “박진섭 감독은 현역시절부터 지도자로

들어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았을 뿐 아니라 지도력 또한 인정받았다. 팀을 재정비하고 도약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박진섭 감독은 “프로팀 감독으로 첫 시작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설레고 긴장도 된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수들과 소통하고 맘 풀리며 광주를 단단한 팀으로 재건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감독 선임이 이뤄지면서 광주의 2018시즌 준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박진섭 감독이 함께할 코칭스태프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휴식을 취해왔던 광주 선수단은 26일째 목포축구센터로 소집될 예정이다.

선수단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주축 선수들 가운데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도 있고, FA 신분이 된 베테랑 수비수 이종민과 미드필더 주현우도 다른 팀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내년 시즌 프로 데뷔를 앞둔 신인들의 영입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재장단'에 가까운 변화 속에 광주의 2018시즌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상도 받고

손흥민, 한국 축구 빛낸 올해의 선수 선정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25·토트넘)이 올해 한국 축구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됐다.

축구협회는 19일 서울 세빛섬에서 열린 2017 KFA 시상식에서 손흥민을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했다. 2013, 2014년에 이어 3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수상이다. 3회 수상은 기성용(스완지시티·2011, 2012, 2016년)과 공동 최다 수상 기록이다.

올해의 남자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언론사와 협회 전임지도자의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1명당 1~3순위 투표가 진행됐다.

손흥민은 168점을 따내 올해 K리그 최우수선수 이재성(전북·131점)을 제쳤다.

WK리그 감독과 각급 여자대표팀 코칭스태프 투표로 선정된 올해의 여자 선수는 인천 현대제철과 대표팀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인 이민아(26·고베 아이나)가 첫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민아는 올해 WK리그에서 14골 10어시스트를 올린 것 같은 팀 인천 현대제철의 '특급 외국인' 비야(24골 14어시스트)에 이어 리그 전체 2위이자 한국 선수 중엔 최고 기록을 남겼다. 국가대표로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예선 평양 원정 경기와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활약했다.



이밖에 이승우(베르디)가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선보인 '50m 폭풍 드리블 골'은 팬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골에 선정됐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당시 조별리그 경기에서 이승우는 하프라인에서부터 수비수를 제치고 50여m를 단독으로 질주한 후 왼발 슛으로 아르헨티나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승우의 선제골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강호 아르헨티나에 2-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시원한 서핑 묘기 호주의 줄리안 윌슨이 18일(현지시간) 하와이파이프 라인에서 열린 서핑대회에서 경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상금도 받고

축구협, 러 월드컵 진출·E-1 챔피언십 우승 20억 지급키로

손흥민·기성용 1억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과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우승에 앞장선 축구 태극전사들이 연말에 두둑한 포상금을 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열어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에 따른 포상금 지급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포상금 규모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기준으로 총 20억원 안팎이다.

브라질 월드컵 때는 10차례 최종예선에 한 번이라도 소집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기여도를 네 등급으로 나눠 상금을 차등 지급했다. A급 1억원, B급 8000만원, C급 6000만원, D급 4000만원이었다.

소집 횟수와 출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손흥민(토트넘)이 A급 기준에 들어갈 수 있어 1억원 안팎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흥민은 중국과의 최종예선 6차전 원정경기 때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했지만 대부분 경기를 풀타임으로 활약했다.

올리 슈틸리케 전 감독 체제에서 불박이 주장으로 활약했던 기성용(스완지시티)도 A급 대상 선수다. 기성용은 이란

과 9차전, 우즈베키스탄과 10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에 소집되고도 무릎 부상 여파로 뛰지 못했지만 직전까지 거의 전 경기를 풀타임 출장했다.

또 8차전까지 대표팀 부동의 골키퍼로 나선 권순태(가시마)와 미드필더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도 기여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브라질 월드컵을 기준을 적용할 때 1억500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월드컵 당시 본선행을 지휘했던 최강희 전 감독이 받았던 액수다.

신 감독은 슈틸리케 전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지난 7월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최종예선 2경기만 치렀지만 한국의 9회 연속 본선 진출 목표를 달성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지급은 월드컵 본선 진출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하는 협회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전 선수에게 포상금을 공동 지급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E-1 챔피언십 우승 상금 2억8000만원도 선수단에 전월 지급한다.

/연합뉴스



유럽과 만나러 갑니다

신태용 감독 출국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한일전 대승을 지휘하고 우승 기쁨을 맛본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설 사이도 없이 유럽과 접점에 나섰다.

신태용 감독은 19일 김해운 골키퍼 코치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떠났다.

신 감독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1부 리그)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유럽과 한국 선수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선수와는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E-1 챔피언십을 마치고 17일 귀국한 데 이어 하루를 쉬고 곧바로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예비 태극전사들의 체크에 나서게 된다.

신 감독의 점검 대상은 리그앙에서 활약하는 공격수 석현준(트루아), 미드필더 권창훈(디종)과 EPL의 '한국인 3총사'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창용(크리스탈 팰리스) 등이다.

겨울 휴가 시즌이 겹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의 공격수 황희찬(잘츠부르크)과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한국

인 듀오' 지동원, 구자철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손흥민과 기성용, 권창훈 등은 러시아 월드컵 본선 출전을 사실상 예약한 가운데 최근 활약을 펼치는 석현준과 소속팀에서 벤치를 지키는 이창용이 집중 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석현준은 지난 10일 프랑스 리그앙(1부 리그) AS모나코전에서 멀티 골을 폭발하며 시즌 5호 골을 기록 중이다. 신태용 감독이 손흥민과 투톱을 이룰 파트너를 모색 중인 가운데 석현준은 황희찬, 이근호

(강원), 김신욱(전북), 이정협(부산), 진성욱(제주) 등 공격수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뒤흔어야 한다.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 밀린 이창용도 지난 10월 유럽 평가전 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신 감독은 선수들 점검을 마치고 내년 1월 5일 귀국하며, 같은 달 22일 대표팀을 소집해 동계 전지훈련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내년 1월 동계 전지훈련 때는 유럽과 선수들을 차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 경기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해운 골키퍼 코치가 돌아가며 신 감독과 선수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1월 2주 정도 진행할 전후 캠프 장소로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가 유력한 가운데 평가전 상대로는 1차전 상대인 스웨덴을 가상한 북유럽이나 동유럽 국가의 대표팀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2019년 국내서 개최

동아시아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2019년 대회가 국내에서 열린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9일 “한국과 중국, 일본의 순환 원칙에 따라 E-1 챔피언십 2019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면서 “내년 3월 회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 사무국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1 챔피언십이 국내에서는 열리는 건 세 번째다. 한국은 2005년 2회 대회와 2013년 5회 대회를 개최했다.

동아시아축구연맹 산하 10개국 중 남녀 모두 4개국씩 출전해 우승을 다투는데 한국은 남녀 대표팀 모두 출전이 확정됐다.

남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은

본선에 직행했고, 나머지 7개국이 예선을 거쳐 한 팀이 합류한다. 올해 대회에는 북한이 출전한 가운데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이 개최국 일본을 최종 3차전에서 4-1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북한 남자 대표팀은 홍콩, 대만, 몽골, 괌 등과의 예선 판문을 통과해야 한국 대회에 나올 수 있다.

여자부는 개최국 한국이 자동 출전권을 받았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높은 2개국, 예선을 통과한 1개국 등이 참가한다. 올해 대회 챔피언으로 동아시아 국가 중 FIFA 랭킹이 일본(9위) 다음으로 높은 11위인 북한도 출전 가능성이 크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해 2차 예선에서 홍콩, 대만, 괌을 따돌리고 올해 대회에 참가했다.

/연합뉴스